

남조선군부호전세력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동족대결의 화약내를 질게 품고있다. 얼마전 경상북도 포항 앞바다에서 록, 해, 공군의 지원밑에 해병대 합동상륙훈련이라는것을 벌린것은 그 대표적사례이다. 합동상륙훈련은 상륙함에서 출발한 해병대와 상륙돌격장갑차들이 직승기들의 엄호밑에 연막탄을 터뜨리며 해안에 상륙하여 교두보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군부는 이번 훈련은 해병대와 록, 해, 공군의 합동상륙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년례적인 훈련이다, 훈련은 민간인출입이 통제된 훈련장에서 방역대책을 세우고 진행되었기때문에 장병들의 안전은 철저히 보장되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한편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은 의제와 합동하여 5일간에 걸친 연합공중훈련이란것도 강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은 지난 20일부터 2주 일간 남조선강원도

린제군에 있는 훈련장에서 4 5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한 대규모야외전투 훈련을 강행하고 미국의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브 호크》를 계속 끌어들이고있다. 지금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사태로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이미 계획된 군사훈련들을 무기한 연기, 중지하고있는 형편이다. 남조선에서도 《COVID-19》 사태가 지속되는것으로 하여 군사훈련을 걸어치울데 대한 각계의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들은 민심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북침전쟁의 화약내 풍긴다. (포항앞바다에서 진행된 해병대 합동상륙훈련)

남조선에서 전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가 초상집신세가 된 《미래통합당》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정치일선에 다시 나서 보려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나타내고있다고 한다. 홍준표는 지금 매일같이 《미래통합당》이 오늘처럼 처참하게 짓이겨진것은 황교안과 같은 《드래기》, 《초년생》들이 주인공을 하며 《따가》는 공천, 《감동없는 선거운동》을 벌린데 있다고 하면서 이에 동조하였던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재의 당지도부 모두가 사퇴해야 한다고

말고있다. 또한 보수계파들속에 변절한 인물이 없으니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사람들로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소리도 늘어놓고있다. 한발 더 나아가 자기는 《국익》을 우선시 한다는데, 진보나 보수와 같은 대립진영에 매몰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자칭을 하며 《따가》에 오를 민중이 마냥 으시내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홍준표의 집요한 권력야심이 다시 세차게 발작하였다는

말마전 남조선이 미국협상단과 《잠정합의》하였던 방위비분담금안을 미행정부가 거부하여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한다. 방위비분담금이 저들의 눈에 성치 않는다고 미국이 걸어버린것이다. 이번엔 남조선당국이 미국측과 《잠정합의》하였던 《13%인상안》이라는것은 남조선자체도 역대 최악의 협상이라고 하였던 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 인상률을 대폭 통과하는것으로 10억US\$수준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것마저도 거부하면서 거액인 40~50억US\$의 방위비분담금을 받아내기 위해 4월 1일부터 남조선강점 미군기지에 군부하는 남조선로동자 4 000여명에 대한 무규제직을 강행해

지금 미국은 《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지연으로 남조선로동자들에게 지급할 비용이 없다고 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이고 생떼이다. 남조선주둔미군이 사용하는 방위비분담금은 예상초 쓰이는 액수보다 더 많이 책정되어 해마다 천문학적인액수의 돈이 남았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이 밝힌데 의하면 남은 돈은 무려 2조원이상이다. 이만한 돈이면 남조선로동자들에게 수년동안 비용을 지급하고도 남는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 돈으로 은행에서 리자놀음을 벌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략취하면서 돈이 없다고 우기고있는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저들의 요구수준에 맞게 올리지 않는다면 4 000여명의 남조선로

동자들의 명줄을 끊었다고 하는 미국의 행동이 잉어도 먹고 나중에는 너구리까지 잡아먹겠다고 하는 우화속의 승냥이의 행태와 신통히도 같고같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인터넷들에 방위비분담금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인로동자를 볼모로 삼고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강요하는 미국은 남조선에서 나가라》, 《동맹이나, 강대나?》라는 분노의 글들이 차남치고있겠는가. 줄수록 남양이라고 남이아 죽든 살든 상관없이 모든것을 독차지하려는 미국과 이것저것 섬겨바치며 아무굴종만 하는 남조선사이는 어디까지나 상전과 하수인이사이 일뿐이다. 이러한 종속관계로 남조선인민들에게 차례대로 수치의 굴욕, 불행뿐이다. 리서철



우리는 국민이다! 정부가 보호한다

4.19 봉기정신을 이어 초불민의를 실현할것이라고 주장

남조선 인터넷신문 《자유시보》에 의하면 청년세대가 19일 4.19인민봉기가 일어난지 60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60년전 민주화를 위해 리승만독재 《정권》의 총칼에 피흘리고 목숨을 잃

으면서 싸운 4.19봉기정신은 오늘도 이어지고있다고 밝혔다. 보수적세력을 청산하고 민주화를 실현하려는것이 초불민의라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적세력들이 벌써 부터 정치적반격의 기회를

엿보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분별적폐청산을 위해 모든 진보민주개혁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면서 부정부의에 맞서 항거한 4.19정신을 이어 국민들과 함께 행동해야할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 법원 이전 로조단체 성원에게 징역형 선고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법원당국이 20일 전 민주로총소속 건설로조 위원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 28일 《국회》 건물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건설근로자법》을 통과시킬것을 요구하

였다. 법원당국은 이러한 행동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방교섭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걸려 그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본사기자

보안수사대 해체를 요구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민중민주당소속 성원들이 20일 서울의 대공분실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보안수사대 해체를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리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권력의 총검노릇을 한 보안수사대가 아직도 가장처럼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중을 탄압하는 기구인 보안수사대의 청산은 더는 미룰수 없다고 그들은 강조

하였다. 이어 성명이 낭독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인권을 교살해온 대표적인 파쇼적독압기구인 보안수사대를 즉시 해체해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민주주의탄압 인권교살 보안수사대 즉각 해체하라!》, 《청미친수구경찰악체 철저히 청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본사기자

며들고있다. 또한 보수계파들속에 변절한 인물이 없으니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사람들로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소리도 늘어놓고있다. 한발 더 나아가 자기는 《국익》을 우선시 한다는데, 진보나 보수와 같은 대립진영에 매몰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자칭을 하며 《따가》에 오를 민중이 마냥 으시내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홍준표의 집요한 권력야심이 다시 세차게 발작하였다는

말고있다. 또한 보수계파들속에 변절한 인물이 없으니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사람들로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소리도 늘어놓고있다. 한발 더 나아가 자기는 《국익》을 우선시 한다는데, 진보나 보수와 같은 대립진영에 매몰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자칭을 하며 《따가》에 오를 민중이 마냥 으시내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홍준표의 집요한 권력야심이 다시 세차게 발작하였다는

말마전 남조선이 미국협상단과 《잠정합의》하였던 방위비분담금안을 미행정부가 거부하여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한다. 방위비분담금이 저들의 눈에 성치 않는다고 미국이 걸어버린것이다. 이번엔 남조선당국이 미국측과 《잠정합의》하였던 《13%인상안》이라는것은 남조선자체도 역대 최악의 협상이라고 하였던 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 인상률을 대폭 통과하는것으로 10억US\$수준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것마저도 거부하면서 거액인 40~50억US\$의 방위비분담금을 받아내기 위해 4월 1일부터 남조선강점 미군기지에 군부하는 남조선로동자 4 000여명에 대한 무규제직을 강행해

지금 미국은 《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지연으로 남조선로동자들에게 지급할 비용이 없다고 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이고 생떼이다. 남조선주둔미군이 사용하는 방위비분담금은 예상초 쓰이는 액수보다 더 많이 책정되어 해마다 천문학적인액수의 돈이 남았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이 밝힌데 의하면 남은 돈은 무려 2조원이상이다. 이만한 돈이면 남조선로동자들에게 수년동안 비용을 지급하고도 남는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 돈으로 은행에서 리자놀음을 벌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략취하면서 돈이 없다고 우기고있는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저들의 요구수준에 맞게 올리지 않는다면 4 000여명의 남조선로

동자들의 명줄을 끊었다고 하는 미국의 행동이 잉어도 먹고 나중에는 너구리까지 잡아먹겠다고 하는 우화속의 승냥이의 행태와 신통히도 같고같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인터넷들에 방위비분담금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인로동자를 볼모로 삼고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강요하는 미국은 남조선에서 나가라》, 《동맹이나, 강대나?》라는 분노의 글들이 차남치고있겠는가. 줄수록 남양이라고 남이아 죽든 살든 상관없이 모든것을 독차지하려는 미국과 이것저것 섬겨바치며 아무굴종만 하는 남조선사이는 어디까지나 상전과 하수인이사이 일뿐이다. 이러한 종속관계로 남조선인민들에게 차례대로 수치의 굴욕, 불행뿐이다. 리서철

보안수사대 해체를 요구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민중민주당소속 성원들이 20일 서울의 대공분실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보안수사대 해체를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리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권력의 총검노릇을 한 보안수사대가 아직도 가장처럼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중을 탄압하는 기구인 보안수사대의 청산은 더는 미룰수 없다고 그들은 강조

하였다. 이어 성명이 낭독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인권을 교살해온 대표적인 파쇼적독압기구인 보안수사대를 즉시 해체해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민주주의탄압 인권교살 보안수사대 즉각 해체하라!》, 《청미친수구경찰악체 철저히 청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본사기자

확대되고있는 《COVID-19》 피해, 그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

세계적으로 《COVID-19》 감염자 263만 4 900여명, 사망자 18만 4 028명

《COVID-19》가 210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계속 전파되고있다. 보도들에 의하면 22일 24시현재 세계적으로 263만 4 918명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18만 4 028명이 사망하였다. 에스빠냐의 감염자수는 20만 8 389명, 사망자수는 2만 1 717명으로서 전날에 비해 각각 4 211명, 435명 더 늘어났다. 이탈리아에서 감염자수가 18만 7 327명으로 이르렀다. 사망자수는 437명 증가하여 2만 5 000명을 넘어섰다. 프랑스에서도 《COVID-19》에 걸려 죽은 사람들의 수가 2만 1 340명에 달하였다. 도이칠란드에서는 2 237명의 감염자가 새로 등록되어 그 수는 14만 5 694명으로

증가하였다. 영국에서 13만 3 495명의 감염자와 1만 8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감염자수는 하루사이에 4 451명 더 늘어났으므로 된다. 벨지크에서 4만 1 889명, 네델란드에서 3만 4 842명, 스위스에서 2만 8 268명의 감염자가 등록되었다. 튀르키예에서 하루동안에 3 083명이 비루스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감염자수는 9만 8 674명으로 증가하였다. 사망자수는 모두 2 376명이다. 이란에서도 1 194명이 감염자로 새로 확진되었다. 이 나라의 총적인 감염자수는 8만 5 996명, 사망자수는 5 391명이다. 일본의 감염자는 1만 2 703명, 사망자는 308명이다.

카타르에서 새로 608명이 비루스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총 감염자수는 7 141명으로 늘어났다. 새 감염자들의 대다수가 《COVID-19》에 걸린 환자들과 접촉한것으로 하여 격리되어있던 해외로동자들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인디아, 파키스탄, 아랍추장국리방, 오스트랄리아, 이스라엘에서 감염자들이 증가하였다. 브라질에서 4만 5 757명이 비루스에 감염되고 그중 2 906명이 사망하였으며 메히코에서 9 501명의 감염자와 857명의 사망자가 갔다. 유엔대변인은 21일현재 유엔기내에서 249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으며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COVID-19》 감염자수 84만여명으로 증가

미국에서 22일 현재 《COVID-19》 감염자수가 84만여명으로 이르렀으며 그중 4만 6 611명이 사망하였다.

뉴욕주에서는 26만 3 000여명의 감염자와 1만 9 000여명의 사망자가 갔다. 뉴욕시의 사망자수는 1만 5 000명을 넘어섰다.



세계보건기구 총국장 방역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갈데 대해 언급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이 22일 화상보도발표모임에서 《COVID-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들이 계속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대부분 나라들에서 《COVID-19》 전파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며 먼저 전염병피해를 입은 나라들에서 또다시 감염자가 늘어나

기 시작한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 전염병이 장기간 존재할것이며 아직 같같은 멀다 하고 하면서 그는 많은 나라들이 방역조치들을 취한것으로 하여 《COVID-19》의 전파가 억제되고있지만 이 비루스는 의연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가장 큰 위험은 자

만이라고 하면서 감염자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격리치료를 하며 접촉자들을 추적, 격리시키는것을 방역사업의 근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방역사업이 일관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감염자수와 사망자수는 더욱 늘어나게 될것이라고 그는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잠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울사5조약》 날조를 통한 일제의 날강도적인 조선강점점은 조선민족의 분노를 폭발시켰으며 그것으로 하여 전근대적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독립운동이 맹렬히 벌어졌다. 당시 조선민족이 벌린 반일독립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끝장내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었다. 이에 겁을 먹은 일제는 조선민족의 반일기세를 억누르고 민족적독립에 대한 희망을 영영 없애버리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특히 반일에극력양인 병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당시 반일의병투쟁은 조선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개되었으며 병들은 도처에서 일제수비대와 헌병, 경찰기관들을 습격하여 왜놈들을 처단하였으며 통치기관들을 파괴하였다. 조선민족의 반일의병투쟁은 1907년 일제에 의한 고종의 강제퇴위와 조선군대의 강제해산을 계기로 더욱 양양되었다. 일제는 조선군병력이 반일의병을 비롯한 조선인민의 반일항전의 조직적력량으로 될수 있다는 공포감으로부터 갖은 모략골에 조선군대

를 강제로 해산하였다. 일제의 조선군대강제해산책동에 참출수 없이 조선인민들은 반일폭동을 일으켜 일제침략자들과 완강히 맞서 싸웠으며 대부분이 의병부대에 합세하였다. 당시 초대통감이었던 이도 히로부미는 일본군장교들에게 통감통치에 방해로 되는 조선의병을 지방소요의 주범으로 취급하며 무자비하게 진압하라고 명령하였다. 그에 따라 일제는 의병들을 《폭도》로 묘사하면서 조선의 주요도시들은 물론 산간벽지까지 기여들어 의병부대에 대한 야수적인 《토벌》을 감행하였으며 지어 의병들이 지나간 마을을 모조리 불사르고 의병들과 련계를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총살하였다. 더우기 일제는 반일의병들에 대한 탄압을 조선에 주둔시키고있던 저들의 무력만으로는 해낼수 없다고 하면서 본국으로부터 보병 12려단과 보병 32려단, 27려단을 새로 끌어들이었다. 이러한 침략무력증강으로 하여 일제의 야수적인 의병투쟁탄압책동은 더욱 강화되게 되었으며 1907년 8월이후부터 절정에 달하였다. 이 시기 전라도지방의 의병들에 대한 일제의 토벌작전이 그 대표적사례이다. 전라도에서 의병투쟁이 활발히 벌어지자 일제는 1908년 8월부터 《남부조선대표보설시계획》이라는 《토벌》작전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이 작전수행을 위해 《토벌》구역과 기간, 병력, 방법, 수단 등에 이르기까지 47개 조항으로 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남부조선에 주둔하고있던 일제침략군 탐시과과대를 주력으로 하고 여기에

6사단 공병소대와 헌병, 경찰관들을 더 증가시켰었다. 일제는 저들의 무력용 《경비부대》와 《행동부대》로 나누어 《경비부대》는 포위선을 형성하고 중요거점들을 지키고 있었으며 《행동부대》는 포위선안에는 의병들과 인민들에 대하여 야수적인 학살과 검거를 감행하게 하였다. 일제는 그해 9월 20일경까지 1기 《토벌》구역에 대한 《토벌》작전을 끝냈으며 이러한 《토벌》작전을 전라도지역에서뿐아니라 도처에서 벌리었다. 일제는 의병들에게 《폭도》, 《무위한》 그리고 의병장들에게는 《폭도의 피수》 등의 딱지를 붙여 그들을 체포하여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일제는 1910년 11월 당시 황해도, 함경도, 경상도일대에서 반일의병부대들에 대한 《토벌》을 대규모적으로 벌리고 수많은 의병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집단적으로 총살하다 못해 때려죽이고 사지를 찢어죽이는 등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일제는 1906년부터 1911년까지 6년동안에만도 2 000여회의 《토벌》을 감행하여 17만명 이상의 의병들과 애국적인민들을 학살하였다. 온 강토를 퍼비린내나 생지옥으로 만든 일제의 학살만행은 계획적인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산물이었다. 우리 민족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지난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반일독립운동에 떨쳐나선 의병들과 애국자들,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 학살한 일제의 극악무도한 죄행을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